

영유아 안전관리

I. 머리말

영유아(0~6세)는 부모들이 조금만 방심한다든지,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이 부주의하면 영유아 사고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로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사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영유아 안전사고의 경우 70~80%가 질식 사고로 어린이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안전사고는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II. 본 문

1. 영유아 안전교육 의의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유아에게 안전과 관련된 지식, 태도 및 기능의 교육이 필수적이며, 그 내용은 첫째,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상황을 이해시키는 지식의 교육, 둘째,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예방하거나 신중히 행동하는 태도의 교육, 셋째,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의 교육이 있다.

2. 영유아 안전사고의 유형

2009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안전사고 중 10세 미만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26.9%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4.3%(2,566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방과 거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도 추락, 미끄러짐·넘어짐, 충돌·충격, 이물질 흡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주의나 안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가정 내 안전사고 유형

- (1) 1위 : 넘어짐(19.3%) (2) 2위 : 화상(16.1%)
- (3) 3위 : 낙상·추락(11%) (4) 4위 : 베임(10.8%)
- (5) 5위 : 찢림(9.8%) (6) 6위 : 미끄러짐(8.7%)
- (7) 7위 : 충돌(5.5%)
- (8) 8위 : 기타 중독, 감전사고 등 (18.8%)

나. 가정 내 위험유발 요인의 노출

- (1) 1위 : 화장품(83.0%) (2) 2위 : 가정상비약(52.7%)
- (3) 3위 : 갈, 가위(48.6%) (4) 4위 : 작은 장신구(42.7%)
- (5) 5위 : 비닐팩(42.2%) (6) 6위 : 다리미(40.5%)
- (7) 7위 : 땅콩, 바둑알(38.4%) (8) 8위 : 세제·표백제(38.2%)

- (9) 9위 : 반진고리(28.8%) (10) 10위 : 성냥·라이터(23.2%)
- (11) 10위 : 수은전지(23.2%) (12) 12위 : 살충제(19.3%)
- (13) 13위 : 공구통(17.3%) (14) 14위 : 송곳, 압핀, 바늘(12.5%)
- (15) 15위 : 왁스, 광택제(4.3%)

다.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 장소

- (1) 1위 : 방(33.5%) (2) 2위 : 거실(27.4%)
- (3) 3위 : 주방(17.2%) (4) 4위 : 욕실(5.0%)
- (5) 5위 : 현관(4.2%) (6) 6위 : 베란다(3.8%)
- (7) 7위 : 기타(18.8%)

라. 삼킴 안전사고 현황

(1) 삼킴 안전사고 대부분은 영아기(1~3세)에 발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는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큰어금니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데다 호흡수가 성인보다 빠른 신체적 특성과 강한 호기심, 무엇이든 삼키는 행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주로 장난감 부품, 작은 크기의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한다.

영유아 삼킴 사고를 유발하는 물품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류 27.3%(199건), 의약·화학제품 25.1%(183건), 가정 생활용품 15.6%(114건), 학용품류 10.6%(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난감류는 주로 완구(93건), 구슬(53건), 비비탄 총알(48건)과 같은 작은 장난감이나 부품에 의한 것이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가정에 흔히 방치되어 있는 동전(48건), 머리핀(33건), 단추모양 건전지(28), 바둑알(25건), 면봉(24건) 순이며, 심지어 연필, 빨대, 체온계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가 이러한 위험물질을 삼키면 대부분은 전신마취 후 내시경으로 제거하게 되며, 특히 단추모양의 건전지인 경우 식도 부식에 의한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해품목에 따라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3) 가족이 사용하는 물건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 빈번하다.

실제 사고를 경험했던 영유아 보호자의 설문조사 결과(174명), 사고 원인이 된 물품의 66%(115건)는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것으로 나타나 장난감의 분리 보관이나 작은 물품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호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장소는 주

방(32.2%)과 배란다(18.4%)인데 반해, 실제사고는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84%)에서 발생하였으며, 사고발생시간은 보호자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대인 오후5시~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36.2%)하였다.

마. 예방요령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기준 강화, 결합정보에 대한 보고제도 도입, 시판품 조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 강화,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위험물질을 삼켰을 때 무리하게 빼내려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가정내 작은 물건에 대한 정리정돈과 놀이용품 구입·놀이·보관에 대한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1) 어린이용품 구입

- ①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구입, 제품에 표시된 경고문을 충분히 숙지한다.
- ② 눈이나 코가 단추나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은 피한다.
- ③ 입으로 물거나, 바닥에 던지더라도 쉽게 파손이 되지 않도록 견고해야한다

(2) 놀이할 때

- ①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놀이과정을 지켜 보아야 한다.
- ② 분해되는 장난감은 주지 않는다.
- ③ 작은 구슬이 들어 있는 딸랑이, 장신구 등을 아기 목에 걸지 않도록 한다.
- ④ 인형의 눈, 코 등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리본이나 끈을 잘라버린다.

(3)보관할 때

- ① 단추나 구슬 등 작은 물건은 아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② 큰 아이들의 장난감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만 4~5세용 장난감은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1~2세 미만 영아들이 노는 곳에는 만 4~5세용 장난감을 함께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장난감은 놀이 후 점검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은 폐기한다.

3. 영유아 안전관리의 목적

유아들은 신체, 운동 발달이 미숙하여 자신이 신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사태를 판단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적 사고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유아들은 사물이나 사태를 탐색하려는 욕구나 호기심이 많고 잠시도 조용히 앉아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유아들은 항상 불의의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이처럼 사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교사는 물론, 모든 성인들이 유아들을 철저히 보호, 지도하고 그들의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4. 영유아 안전교육의 중요성

영유아의 발달특성과 안전사고 실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다른 시기보다 변화의 속도나 정도가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로서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발달되며,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배우는 시기이다.

영유아기는 자기 조절 능력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느 시기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모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는 일이 부모와 교사의 최우선적인 임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발생후의 대책이나 처리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가 스스로 몸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 및 태도를 형성시켜주는 일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기는 바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은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5. 영유아 안전교육의 내용

유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은 유아들에게는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의 영역은 그들 주변의 모든 인적, 물적 환경 요인이 그 대상이 된다. 각종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아들의 보호교육을 맡은 성인들은 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표 1. 참조)

〈표1〉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구분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교육 내용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 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전 관련 내용	1. 약물의 종류·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교육 내용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에 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현장방문·학습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6. 영유아를 위한 안전관리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실내·실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가. 시설관리

- (1) 비상시 피난 해야할 장소를 확인한다.
- (2)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 주변에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3) 비상구와 비상통로에는 내부로부터의 신속한 탈출을 방해하는 잠금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 (4)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5) 화재경보기, 연기탐지기, 스프링클러, 누전차단기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6) 소화기는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7) 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8) 커튼, 실내장식물, 카펫, 벽지 등은 방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 실내환경관리

- (1)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

- 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2) 오침 및 급식을 위한 침구·식탁 배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오침시 영아침구간격 60cm이상 확보) 확인한다.
- (3)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지 확인한다.
- (4)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 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5) 온수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6) 가구의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는지(고무 또는 모서리 보호대 등 장치 설치여부) 확인한다.
- (7)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이 보관되어 있고, 선반 설치시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8)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9) 시설 내에서 게시판 부착용으로 압정, 핀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실외환경관리

- (1) 놀이기구 및 놀잇감은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를 확인 한다.
- (2) 놀이터 시설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이 부식되어있지 않는지 확인한다.
- (3)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은 없는지 확인한다.

라. 교통안전관리

- (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받았는지 확인한다.
- (2) 운영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했는지 확인한다.
- (3)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가 차내에 상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가 동승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5) 보호자 부재시 아동을 하차시켜서는 안 되며 시설로 복귀시켜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6)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 위생관리

-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2)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은 관리를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정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확인한다.
- (3)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확인한다.
- (4) 동물(애완동물 포함)과 곤충들로부터 영유아들이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7. 영유아기 발생하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법

가. 머리를 다쳤을 때

- (1) 어린이의 두부 출혈은 쇼크를 초래하기 쉽다. 먼저 두개골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상처 부위를 만져 보아, 두개골의 골절이 없다면 상처 주위를 손가락으로 눌러 지혈한다.
- (2) 두개골 골절이 의심되면 직접적인 상처 부위가 아닌 근접 부위를 압박을 가하고 골절 부위는 압박해서는 안 된다.
- (3) 환자의 몸을 보온하지 않는다. 외부 온도가 20℃ 이상이면 담요를 덮지 말아야 한다.
- (4) 상처는 덮어 준다. 뇌 조직이 노출되는 두개골 골절인 경우 소독된 가제를 적서 가볍게 덮어주며 코나 귀에서의 출혈이나 뇌척수액은 가제로 덮어낸다.
- (5) 두개골에 이물질이 박혀 있으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 (6) 환자는 앉은 자세로 이송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엎들린 자세로 이송 도중 반쯤 엎드린 자세가 바람직하다.

나. 코피가 날 때

- (1) 코피가 나면 앞으로 몸을 굽히듯이 앉혀서 목구멍으로 피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피는 삼키지 말고 뱀을 내도록 한다.
- (2) 쉽게 그치는 코피도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는 비강종양 등의 비강 질환이나 고혈압, 신장, 혈액, 간장 질환 등의 전신질환에 의한 경우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다. 갑자기 열이 날 때

- (1) 오한과 떨림이 시작하면 담요 등으로 전신을 보호하고 따뜻한 음료를 준다.
- (2) 발열하면 안정을 취하게 한다. 쿨베개로 머리를 식히면 기분이 좋아진다.
- (3) 온몸에 갑자기 열이 오를 경우 이마에 얼음주머니나 찬물수건을 얹고,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겨드랑이나 등을 마사지 하여 식혀주고 의복은 얇게 입힌다.
- (4) 손발이 차면서 머리와 가슴 부분만 열이 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이고 모포를 덮어 땀이 나도록 하면서 재운다.

라. 경련을 일으켰을 때

- (1)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하여 호흡을 편히 할 수 있게 한다.
- (2) 위험한 것이 있는가, 입 속에 사탕 등이 들어 있지 않은가 조사한다.
- (3) 담요 등으로 보온한다.
- (4) 심한 경련 시에는 혀를 깨물지 않도록 수건을 접어 치아 사이에 물린다.
- (5) 열로 인한 경련인 경우에는 얼음주머니로 머리, 목, 겨드랑이를 식힌다.
- (6) 토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눕힌다.

마. 구토

- (1) 백타이나 벨트 등 옷을 느슨하게 한다.
- (2) 토한 것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옆으로 눕히고 세숫대야 등을 준비한다.
- (3) 토물 냄새는 다시 토기를 유발하므로 신속히 처리하고 입을 깨끗이 행군다.
- (4) 숙취 등 걱정이 없는 구토이외의 구토물은 보관했다가 의사에게 보인다.

바. 복통

- (1) 뒹굴거나 배를 움켜쥐고 쭈그리고 앉으며 새우처럼 쪼그리고 아파하는 증상은 격통이라 할 수 있다. 격통이 계속되거나 일단 통증이 멎었다가 곧 반복해서 아픈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구급차를 부른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물과 음식을 주지 않도록 한다.
- (2) 보통의 복통인 경우에는 느슨하게 해서 눕히고 무릎을 세우면

- 복부의 긴장이 느껴져서 통증이 완화된다. 그런 다음 상태를 살펴 조사하고 의사에게 보고한 후 판단을 기다린다.
- (3) 복통 이외의 증상은 없으며 배변 후 복통이 없어지고 건강해진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4) 복통이 계속되고 있을 때는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식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사. 설사가 날 때

- (1) 옆으로 조용히 눕힌다.
- (2) 체온 정도로 끓여서 식힌 물과 엽차 등을 주어 수분을 공급한다.
- (3)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우선 식사를 주지 않지만, 기운이 있거나 식욕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준다.
- (4) 젓먹이 유아로서 며칠씩이나 설사가 계속 된다거나 체중이 감소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과의 진찰을 받는다.
- (5) 설사나 일종의 장내의 독물에 대한 배설 작용이므로, 신경성에 의한 만성설사를 제외하고 지사제는 가능한 쓰지 않는다.

아. 출혈

- (1) 유아가 숨을 쉬고 있는지 맥박이 뛰고 있는지 확인한다. 숨을 쉬지 않거나 맥박이 뛰지 않으면 지혈을 하기 전에 먼저 인공호흡을 한다.
- (2) 지혈을 한다. 피가 나고 있는 상처부위를 깨끗한 가제로 직접 압박한다. 상처에 댄 가제는 떼지 않고 필요하다면 새 가제를 그 위에 덧댄다.
- (3) 압박을 계속한다.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다면 압박을 계속하면서 손과 발을 심장보다 위에 있도록 올려놓는다.
- (4) 일단 출혈이 멈추면 너무 조이지 않게 붕대를 단단하게 묶는다.
- (5) 쇼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아가 춥거나 냉습하거나 무기력해 있다면 발을 높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준다.
- (6) 출혈이 계속되면 상처부위에 압박을 강하게 계속하고 병원으로 즉시 옮긴다.

자. 귀, 눈,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1)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벌레가 들어간 경우 귀를 위로해서 눕히고 샬러드기름, 올리브기름 등 깨끗한 식물성 기름을 귀에 떨어뜨려 벌레를 죽인 후 전문의를 찾아가 빼낸다.
 - 콩 등은 핀셋으로 빼려다가 더 밀어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문의에게 맡긴다.

- (2)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이물질이 보이면 탈지면이나 청결한 가제의 모서리를 물에 적셔서 침착하게 꺼낸다.
 - 세면기에 물을 가득 채워 얼굴을 담그고 눈을 깜박거리며 빠지게 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흘려가며 눈을 씻는다.
 - 안약이나 안대는 의사의 지시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3) 코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 반대쪽의 콧구멍을 막고 세계 코를 풀거나 가는 끈으로 자극해서 재채기를 하게 한다.
 - 미끄러워서 잘 꺼낼 수 없으면 무리해서는 안 되고 기관지로 들어갈 위험도 있으므로 빨리 전문의에게 가서 빼낸다.

III. 결론

유아기에는 자기 조절능력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어느 시기보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모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는 일이 교사와 부모의 최우선적인 임무다. 그러므로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후의 대책이나 처리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스스로 몸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바른 습관 및 태도를 형성시켜 주는 일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안전교육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도 크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게다가 영유아시기에 사고를 당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면 평생 상처가 됨으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의 일환으로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장차 성장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부모와 보육사와 더불어 같이 신경 써 주어야 할 것이다. 